

47권3호(357-366)의 “임신 2삼분기 여성의 조기진통 증상과 조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인성 요인”-김증임 · 조미옥 · 최규연. p.363 결과해석오류를 정정합니다.

1) p.363 왼쪽단 11째줄**Before correction**

조기진통 증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임신 전 흡연으로 나타났다.

After correction

조기진통 증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임신스트레스로 나타났다.

2) p.363 오른쪽단 논의 9째줄**Before correction**

본 연구에서 조기진통 증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신 전 흡연이었으며, 그다음으로는 임신 합병증, 임신 스트레스로 나타났다

After correction

본 연구에서 조기진통 증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신 스트레스이었으며, 그다음으로는 임신 합병증, 임신 전 흡연으로 나타났다

DOI of original article: <https://doi.org/10.4040/jkan.2017.47.3.357>

Address reprint requests to : Cho, Mi-Ock

Department of Nursing,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Cheonan, 31 Soonchunhyang 6-gil, Dongnam-gu, Cheonan 31151, Korea

Tel: +82-41-570-2158 Fax: +82-41-571-7887 E-mail: dash1117@naver.com

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. (<http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-nd/4.0>)

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, it can be used and re-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.